

지금 우리 절에서는 - 한마음선원 안양 본원



한마음선원은 분원 중창불사와 함께 어린이·인터넷 포교를 통해 불법 흥포를 하고 있다. 안양 본원 도량에서 탑돌이를 하고 있는 불자들.

대행 스님 추모사업·포교 다각화

1971년 경기도 안양 석수동에 세워진 한마음선원(주지 해원)은 현재 15개의 국내지원과 10개의 해외지원이 설립돼, 25만여 사부대중이 한마음으로 수행 정진하며 불법 흥포와 생활선 수행도량으로서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2012년 5월 선원장이었던 대행 스님 원적 후, 한마음선원은 스님의 한마음 큰 뜻을 새기면서 내외실을 다지는데 주력하고 있다.

우선 한마음선원은 2012년 11월 부산지원 대법당을 준공하고, 2013년 4월에는 LA지원 새법당을, 6월에는 충북 음성 광명선원 대웅전을 완공해 불교문화도량으로 거듭나는 계기를 가졌다. 또한 지난해 10월 통영지원 새도량 기공식 거행하고 통영시민들이 오갈 수 있는 마음도량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마음선원은 포교 영역을 다각화 해 다채로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어린이 포교지 '마음꽃'을 출간해 어린이 포교에 주력하는 한편, 인성교육을 활용한 포교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2013년 1월에는 한마음과학원에서 진행하는 '한나무' 인성교육프로그램이 인성교육법국민실천연합에서 주최하는 우수인성교육프로그램 공모전에서 학교부문에서 가장 탁월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군포교와 문화포교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2012년 연말에는 파주 제1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한마음음악제'를 열어 군인장병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해 10월 월정사에서 개최한 '오대산 문화축전'에 참가해 한마음선원선법합창단이 '탄허대종사탄신 100주년 기념대합창제'를 열어 탄허 스님의 일생을 노래와 공연으로 표현해 참가자들 법열을 느끼게 했다.

대행 스님의 추모사업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지난 해 5월에는 대행선사 추모 1주기 다례자와 부도탑 제막식을, 12월에는 한마음선원 본원 내에 대행선사 동상 건립을 목표로 심주석을 세우는 화합재를 거행했다.

한마음선원은 갑오년 설날을 기점으로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고 대행선사 온라인 박물관(www.daehaeng.org)과 한마음 TV(www.hanmaum.tv)도 신규 개통해 온라인 포교에도 힘을 기울인다.

이나는 기자 oasis1983@hyunbul.com

한마음선원 2~3월 캘린더

2월 8일	한마음 아버지마당 시작
2월 14일	정월대보름 정진
2월 16일	대행 장학 증서 수여식 및 기록관 설립 화합재
2월 28일	불교문화회관 문화강좌 마감
3월 2일	문화강좌 개강

“과세, 각 종교별 특성 반영 필요”

종교인 과세 2월 국회 논의… 종교들 각각 입장 달라

- 현재 기타소득으로 안 상정
- 세부적 규정 없어 혼선 예상
- 조계종 중앙총무기관 스님부터
- 올해 중 근로소득세 납부 계획
- 보수 개신교 단체들 반대 고수

종교인 과세가 2월 임시 국회의 국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김낙희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1월 23일 "2월 임시국회에서 종교인 과세를 마무리 짓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현재 종교인 과세 등 세제 관련 임시 국회 일정도 어느 정도 조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여야 간사는 오는 2월 13일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관세청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으며, 14일 오전 10시에는 조세소위원회와 경제재정소위가 예정돼 있다. 종교인 과세는 14일 열릴 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가 올린 종교인 과세 세제안은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 즉 사례금으로 분류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기타소득은 비정기적으로 생기는 소득을 말하며, 상금, 복권 당첨금, 원고료, 강연료 등이 이에 해당된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종교인이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보수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되, 소득공제 없이 4.4%의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다만 기존의 과세관행과 신고·납부 준비기간을 고려해 2015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종교인 과세에 대해 종교 간 이견 차는 상당하다. 사찰과 교회 등 종교단체에서 제

공받은 금품에 대한 명확한 정의도 없고 불교의 경우 해제비와 법문비 등을 어떻게 소득으로 부과할지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경우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일반 국민과 달리 세금을 내고도 사회적 안전망의 혜택을 볼 수 없는 문제도 있다. 기타소득 과세는 국민건강보험 등 4대 보험 혜택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보수 기독교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고신, 합신 등의 목회자단체대책위원회는 2월 5일 모임을 갖고 "종교인 과세가 종교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자발적 납세나 사회 섬김·봉사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교단과 단체는 교단 임원회 등 내부 논의를 거쳐 2월 초·중순경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국회에도 공식 전달하기로 했다.

현재 불교계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다. 다만 불교의 특수성을 감안해 조세 정책이 결정될 때 요구하

고 있다.

조계종 기획국장 남전 스님은 "일부 교역직 스님에게 제공되는 '보시'가 근로 개념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문제이지만, 무엇보다 불교 특성에 맞는 조세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일선 조세 관계자들이 총무원에 와서 설명을 하고 갔는데, 대부분 개신교에 해당되는 항목들이 많았다.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각 종교의 특수성을 감안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교역직 스님들의 근로소득세 납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2월 국회에서 종교인 과세의 결론이 나지 않더라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라며 "올해 예산 편성도 끝마친 상황이다. 자세한 것은 정부와 국회 결정을 살피고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 같은 불교계와 각 종교의 입장에 대해 박춘호 기획재정부 소득세과장은 "현재 정부는 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방식"이라며 "국회에 결의 후에도 더 좋은 과세 방안이 있다면 검토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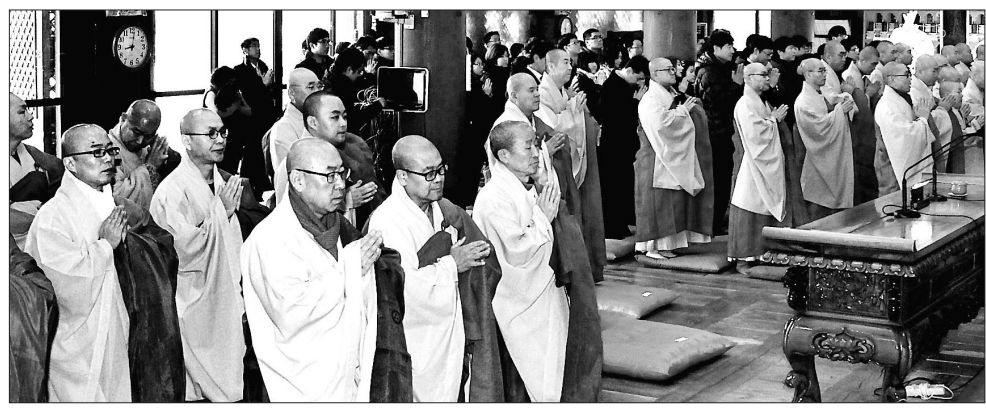
“희망 주는 불교 되도록 노력하자”

조계종, 5일 중앙총무기관 신년 하례 법회

조계종은 2월 5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중앙총무기관 및 산하기관 신년하례 법회를 봉행했다.

중앙총무기관과 산하기관 교역직·일반직 총무원 300여 명이 참석한 법회에서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34대 집행부 과제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자승 스님은 "새해에는 34대 집행부의 과제들을 정리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행복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다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불교가 되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조계종은 2월 5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중앙총무기관 및 산하기관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사진제공= 조계종 총무원

교육원장 현음 스님은 "종단의 자성과 쇄신 노력에 총무원들이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으며, 포교원장 지원 스님은 새해에는 친절

한 마음과 미소로 이웃과 함께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제안했다.

신종일 기자

행자교육 거부 놓고 조계종·선학원 '설왕설래'

조계종 46·47 사미 사미니계 교육 선학원 행자 5명 입교 예정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음)이 선학원 수계 교육이사에 선임된 철오 스님의 교계 언론과의 인터뷰 내용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교육원은 불교닷컴과 BTN불교TV에서 보도된 철오 스님 인터뷰 중 "새해 들어 조계종 교육원이 사미 사미니 수계교육을 하는데 미

등록 사찰이라는 이유를 들어 선학원 도제의 행자등록신청을 거부했다"라는 발언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2월 3일 밝혔다.

교육원은 "선학원의 행자등록 신청에 대해 거부하지 않았으며, 행자등록 거부로 인한 항의도 받은 적이 없다"면서 "지난해 3월 중 중앙총회에서 선학원대책위원회가 구성돼 활동

하고 있으며 선학원의 도제 양성에 대한 중단 방침은 정해진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선학원(이사장 법진)은 기관지인 '불교저널'을 통해 재반박했다. 불교저널은 경북의 소속 사찰에서 벌어져 은사 스님은 행자와 이연할 수 밖에 없었다고 기술했으며 1월 13일 선학원 총무원이 교육원에 관련 사실을 따져물었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2월 18일부터 3월 5일까지 진행되는 교육원의 제46기 사미 사미니계 수계교육에 선학원 행자 2명이 입교하며, 제47기 사미 사미니계 수계교육에 선학원 행자 3명이 등록할 예정이다.

신종일 기자

소식지·기념관 건립 추진 10.27법난위 정상화 '박차'

소관부처를 문화체육관광부로 이전한 10.27법난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위원장 정만, 이하 법난위) 소식지 <귀정>을 발간하고 조직정비를 통해 명예회복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소식지 <귀정>은 바른 것으로 돌아간다는 뜻으로 10.27법난에 대한 진상조사와 명예회복의 의지가 담겼다. 소식지에는 위원회의 소개, 피해신청 접수 및 처리, 주요 활동 일지 등을 싣고 피해자인 신원사 중화 스님의 인터뷰도 담았다. 지금까지 접수된 피해 신청은 총 178건이며 이 중 명예회복 110건, 의료지원금 32건이 피해자로 인정됐다. 31건에 대해서는 약 5억 4천만원의 의료지원금 지급을 결정할 바 있다. 명예회복의 경우 피해 당사자의 직접적인 신청이 필수다.

법난위는 "1년에 2회 정도 소식지를 발간해 사부대중에게 법난위의 활동을 알리고 피해자들과는 관련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방침이다.

법난위는 지난해 법률 개정을 통해 소관 부처를 국방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하고 지원단을 사무처로 개편해 조직의 안정화를 꾀했다. 법난위는 "국방부 소속으로 발생했던 혼란스러웠던 문제들이 해결되고 현재는 문광부 직원들이 사무처로 파견돼 조직은 안정을 찾은 상태다. 여기에 민간 전문직 사무원을 채용하고 피해자의료심사 기념관 건립 등 핵심 사업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혜숙 기자

2014년도 대한불교원효종 승려증 갱신 및 사찰등록증 갱신 공고

대한불교원효종 총무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2014년도 승려증 갱신 및 사찰등록증 갱신을 실시 하오니 한분도 빠짐없이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기 간 : 2014년 2월 1일 ~ 3월 15일
- ◆ 대 상 : 대한불교원효종 소속의 모든 승려 및 사찰
- ◆ 구비서류 : 승려 - 주민등록등본, 구 승려증 사본, 사진 3매 / 사찰 - 구 사찰등록증 사본, 주지임명장 사본
- ◆ 접수장소 : 대한불교원효종 총무원 (경북 경주시 서라벌대로 322-10 / 전화 054-743-0700 팩스 054-741-9002)

위 기간에 승려증 및 사찰등록을 필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적의 대상이 될 수 있사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총무원으로 직접 방문하여 주시기거나 전화 054)743-070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년하례법회 겸 종단간부 임명을 2014년 2월 21일 오전 11시 대한불교원효종 총무원에서 거행하오니 많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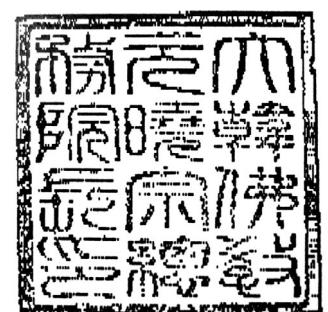
불기 2558(2014)년 2월 7일

대한불교원효종 총무원장 우석

직인 변경 공고

대한불교원효종은 아래와 같이 직인 변경공고를 하오니 종도 여러분은 참조하시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변경된 직인]



2014년 2월 7일

대한불교원효종 총무원장 우석